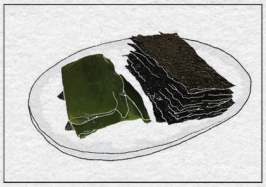
그림 **성승규** 작가(똘프의 그림여행 일러스트레이터)

그땐 그랬지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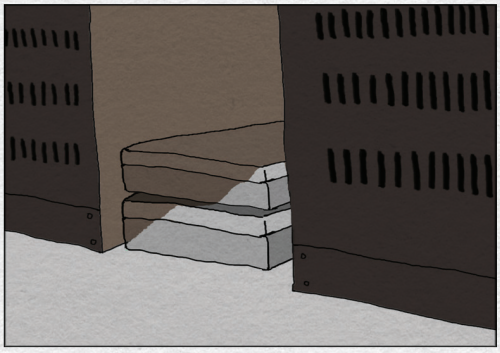
과메기의 추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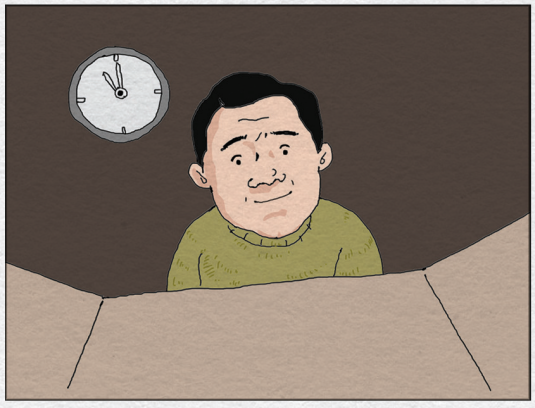
포항 어촌

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메기.
나는 맛은 잘 모르겠지만 과메기 마니아가
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다.
우리 부서 선배들도 마찬가지여서,
가끔 회식자리에서 과메기를 먹기도 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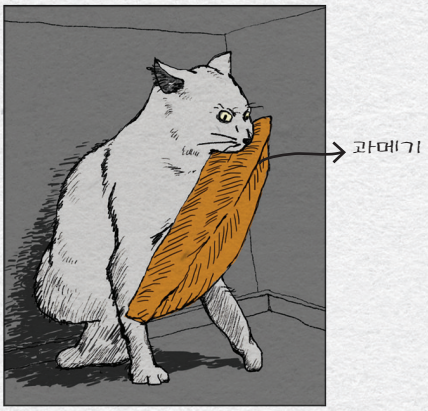
가끔 포항이 고향인 선배나 직원들이
과메기를 주문해주곤 했는데,
그날도 과메기를 일차로 먹고
나머지 주문한 직원들의 과메기를
장비실 랙쪽에 보관하고 있었다.
잘 알다시피 장비실은
냉방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이른바
'과메기 일일보관소'로 손색이 없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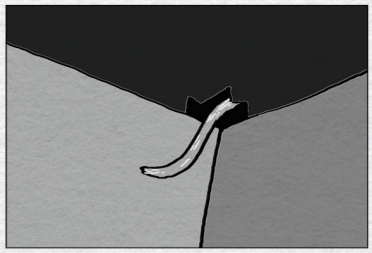


생방송이 있던 날.
생방송이 있으면 신호분배실에서 한명이
대기하며 밤11시부터 새벽1시까지 방송을
모니터링 해야했다.
그날도 대형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링을
시작했다.
좌측 장비실 랙들과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
근무를 하고 있었는데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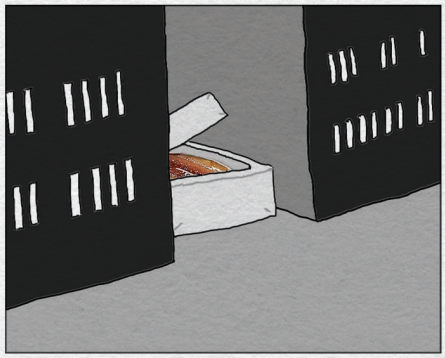
생방송을 시작된지 30분~1시간 정도 지났을까? . .
뭔가 싸늘한 느낌이 들어서 장비실 쪽을 바라보았는데 . .
랙 위에 검은 고양이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.



아참 . . 고양이가 새벽에
과메기를 물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니 . .
이 코메디 같은 상황이 그때 당시에서는 마치
흡사 귀신을 만난 것 처럼 소스라치게 했고 .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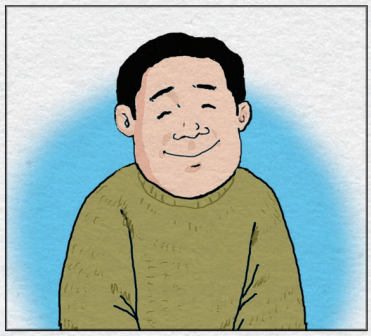


고양이도 내 눈치를
보고 있었는지 . .
나와 눈이 마주치자
천정의 구멍으로
다급히 도망가 버렸다.



장비실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. . 과메기 상자가 열려있고
과메기 몇 마리가 비어 있었다.

고양이가 어디에서 왔을까?
천정에 구멍이 언제부터 나 있었던 거지?
위층은 주조정신인데 주조근무자도
놀라는걸 아닌지 . .
과메기 상자위에 책을 몇 개 올려놓고
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다.



과메기를 보면
그날의 일이 가끔 생각나서
피식 웃게 만들곤 한다.